

창고에서 잠자던 책들이 뿔다

대형서점 상설코너, 알뜰장터 등에 재고도서 시장 형성

재고도서 처리 방안을 두고 출판가가 시끄�다. 특히 지난 7월 25일, 한국출판연구소가 '재고도서 처리방안'을 주제로 열었던 포럼은 재고도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포럼의 요지는 재고도서 유통을 제도화하는 것.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대형서점의 기획행사나 상설코너, 대학 축제기간, 알뜰장터 등의 단발성 행사를 통해 재고도서 시장의 가능성이 내비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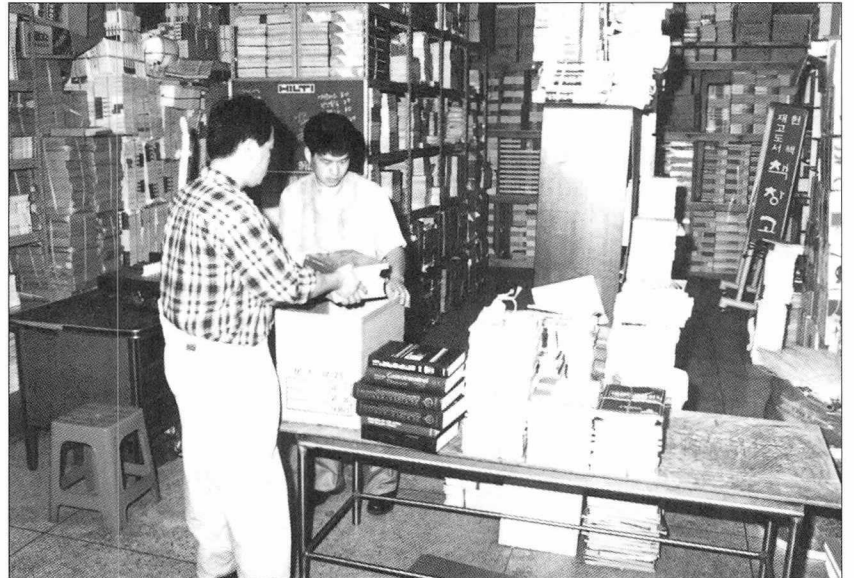
염가판매전·상설코너 등 등장

비교적 활발하게 재고도서가 유통되는 곳은 대형서점. 교보문고는 도로공원을 활용해서 봄·가을로 '구간우량도서 염가판매전'을 연다. 처음에는 가을에만 실시하다가 독자들의 호응이 좋아 봄행사를 늘렸다. 각 출판사에 공문을 띄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열린책들·중앙일보사·조선일보사·문예출판사·범우사·동지·김영사 등 100여개 출판사가 참가하고 있어 비교적 큰 행사에 속한다.

비록 한달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교보문고(대표 류진)의 판매행사는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았다. 40개의 판매대에 약 2~3천권의 책을 진열해 판매하는데, 하루 평균 4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출판사에는 판매가격의 60~70%를 지불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출판사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게 행사를 담당하는 김재준 과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코너를 상설화하면 재고도서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한다.

영풍문고(대표 윤성노)는 상설판매대를 운영하는 경우. 지난 4월부터 인문서가 곁에 '구간할인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 형성사·문예출판사·범우사·하서·오늘의책 등 30여개 출판사가 참가하는 작은 규모다. 코너 담당자는 "방학이 끝나는 즈음이라 요즘은 뜸한 편이지만 방학 동안 호응이 높았다"고 독자들의 반응을 전한다.

최근에는 재고도서 판매서점을 표방한 전문업체까지 등장했다. 도서유통 이포(대표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책들이 본격적인 유통시장으로 뛰어나오고 있다.

정주광)가 체인의 형태로 만든 '책창고'가 그것. 지난 95년 11월부터 700여개 출판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96년 2월에 문을 열었다. 그동안 서울에는 대치동 본점 외에 서울대점·분당점을, 전주·순천·제주·마산·통영·부산·인천지역 등 전국 7개 지역에 지점을 두었다.

정주광 대표는 "처음에는 출판사의 재고

도서를 모두 구입했지만 간혹 휴지로도 쓸 수 없는 책이 섞여 있어 지금은 책을 엄선한다"며, 재고도서를 주겠다고 연락해온 100여개 출판사 가운데 범우사·푸른나무 등 30여개 출판사와 거래한다고 밝힌다.

창계천을 중심으로 한 헌책방들도 재고도서를 취급한다. 하지만 출판사와의 정식거래보다는 중간업자들이 화물운송사업소 입찰 때 사들인 반품도서거나 폐업한 서점에서 헐값으로 사들인 책이 대부분이다. 신촌의 헌책방 '공씨책방'의 정화민 대표는 "잡지의 경우 중간업자에게서 권당 1천원에 현찰로 구입해 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반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한다고 전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재고도서 유통망이 없어서 생기는 폐해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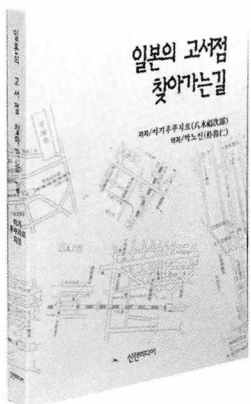
출판사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는 대형서점의 관행처럼 판매가격의 60~70%선을 지불하지만, 화물입찰에서는 정가의 10%도 안되는 싼 값에 책을 사고 그나마 출판사에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재고도서만을 현찰로 사들여 유통시키는 중간업자들이 종이값도 안되는 권당 200원에 책을 사서 400원 정도에 팔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제도화된 재고도서 유통경로를 통한다면 이와 같은 음성적인 루트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리라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본격적인 재고도서 전문 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책창고'의 매출액은 한달에 3천만원 정도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번에 책이 입고될 때마

화제의 책

개성 있는 일본 고서점 안내서

야기 후쿠지로 지음 《일본의 고서점 찾아가는 길》



일본 고서통신사가 발행한 '96 개정신판의 번역본. 일본이 출판대국이라 불리는 것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2500여개의 전국 고

서점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내 출판인들이 일본에서 감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엘 가도 뻘뻘하게 줄지어 선 고서점들. 이 책은 세심한 주제별 전문서점들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 독특한 문학과 향토자료를 보유한 홋카이도의 고서점들을 비롯, 아오모리현·아키타현·이바라키현·나라현·히로시마현·후쿠오카현·구마모토현·오키나와현 등 각 도시별로 고서점들의 상세한 지도와 정보를 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도쿄

도의 진보초(神保町) 주변 간다(神田) 서점가의 소개는 눈여겨 볼 만하다. 진보초에는 130여군데의 고서점이 집중돼 있어 세계적인 책 백화점으로 불린다.

인문 학술 문예서를 취급하는 산신도서점, 문고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고가와무라, 문과계통 서양서 전문점 스분소서점, 미술 사진 디자인 관계를 다루는 다케우치서점, 건축서 전문 난요도서점, 수입서양서 전문 고국사이서방, 이공서 전문 메이린칸 서점 등 끝없이 이어진 서점들의 개성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지도와 함께 개점시간, 정기휴일도 알려주어 도움이 된다. 특히 부록에는 분야별 고서점 일람은 물론 고서목록을 발행하는 서점일람, 전화번호 명부 색인이 들어 있어 완벽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변변한 전국 서점안내 책자 한권 없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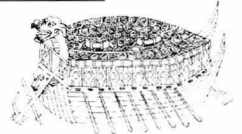
신한미디어/A5신/102면/10,000원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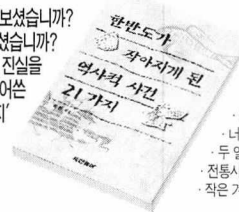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리가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뛰어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봐선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리를 고백하는 까닭 등...

박 현 지음 / 7,000원

비교적 활발하게 재고도서가

유통되는 곳은 대형서점.

교보문고는 도로공원을 활용해

봄·가을로 '구간우량도서

염가판매전'을 열고,

영풍문고는 상설판매대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재고도서

판매점을 표방한 전문업체까지

등장, 재고도서 유통시장이

본격화하는 경향이다.

다 4천부에서 7천부씩 한달에 평균 5번 정도 들어오는데, 미학·철학·문학이론서나 한국학 관련 책은 없어서 못판다.

제작원가 정도 건지는 것이 고작

재고도서를 판매하는 곳의 한결같은 바람은 양서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교보의 경우도 수요가 없는 책들이 많아 미리 재고도서목록을 받아 선별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책창고는 상품가치와 책의 상태를 보아 재고도서의 값을 일일이 매기고, 과잉 구매된 것들은 각급 도서관에 500부 단위로 무료 기증한다. 시장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개 서양 고전문학류, 시의성에 구애되지 않아 팔리는 양도 적지 않다. 비평판이 나오기 전 범우사의 세계문학선, 하서의 세계명작, 문예출판사의 문고판 세계명작선, 사계절의 《임경정》 등은 재고도서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책들이다. 또, 80년대를 풍미했던 사회과학도서도 눈에 띈다.

그러면 출판사들은 재고도서 판매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제작원가를 건지는 정도거나 그 수준을 조금 밑돈다. 대형서점의 코너나 책창고뿐 아니라 지방행사나 신촌·대학로 등에서 열리는 알뜰장터까지 재고도서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우사의 유행두 사장은 "책을 보내고 행사 후 남은 책을 다시 가져오는데 드는 인력과 비용이 적지 않다"며 애써서 만든 책이 독자를 만나게 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교보문고의 김재준 과장은 "아외에 판매대를 40개씩 내놓게 되니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든다"고 말한다. 다른 서점이나 관련 행사장에서는 재고도서를 판매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판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금씩 도둑질해 온 물건 팔듯 하니 홍보가 미미한 것은 당연하고, 많은 출판사들이 재고도서 판매에 나쁜 인상을 갖게 된다.

재고도서 유통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판을 크게 벌이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출판인들은 일본 동경의 간다 거리에서 10월 마지막주 1주일 동안 벌어진다는 헌책 축제를 예로 든다. 또 미국의 반스앤노블에서 신학기마다 전년도판 사전을 50%에 할인해 파는 행사 역시 비슷한 예다. 우리나라도 출판사·서점이 함께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재고도서 축제를 벌이고 이것을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독서붐을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무리한 부수 발행이 문제

아직까지 출판사들은 유통경로의 문제점과 재고도서 문제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고도서 유통에는 부정적인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가제 질서 교란과 신간도서의 판매부진이 예상된다는 것. 일지사 김성재 사장은 "20년이 지나도 팔리는 책은 팔린다. 이런 책을 유통시킨다면 정가제가 무너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재고도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판사가 어렵짐작으로 파내는 과도한 출판물량에 있다. "출판사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수요규모는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한 출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 서점관계자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다. 책의 기획단계부터 과학적인 시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뤄진다면 재고도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의 집적물이라고 본다면 1Kg에 몇 백원씩에 팔려다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이현주 기자

슬슬 읽으면
씩씩 들어오게
풀어낸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동아
TEL: 853-5608
http://www.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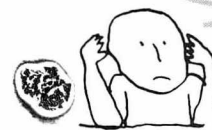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삼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남 경태 지음 / 6,800원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